

칼럼



장기채 주필

옛사람들의 삶에서 배우는 '노년의 지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초라한 걸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도 하지 않았다. 나이 일흔에 청나라로 끌려갔다 가 75세에 고국으로 돌아온 청음 김상헌(1570~1652)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고향에서 두문불출했다.

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 덕분에 대한민국 이혼율이 낮아졌 다는니, 노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느니, 특히 자식이 사업하다 망하면 온 가족이 다 망하게 된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잡다한 말들이 오간다.

의 노후를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지식(知識)은 양적 개념이며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비해, 지혜(知慧)는 질적 개념이며 미래에 대해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작다고 보지 않고, 큰 것도 크다고 보지 않는다. 물건의 양은 무궁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알고 있다.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아도 더 바라지 않는다.

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이제 큰 지혜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한 때 세계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결국 나이가 들에 따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Advertisement for Honam Newspaper (호남신문)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공중 화장실 칸막이 범죄예방 차원 빈틈 메우는건 어떨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관리되고 있는 일반 가정집과 달리 도심 유흥가 PC방이나 호프집 등 일부 업소 중에는 손님 편의를 위한 화장실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하거니와 각종 범죄에 자칫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해당 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나 한두번 업소를 찾았다더라도 한번쯤 화장실을 이용하면 사람은 업소 화장실의 배치구조를 훤히 알게 되고 성범죄 등 범죄 전력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볼 경우 어떠한 범죄든지 발생 가능한곳이 공동화장실이 아닐까 한다.

방치되게 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공동화장실 내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틈을 메우는 조치가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원에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부득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때는 동료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